

조선시대 표전(表箋) 연구(2)

-수사적 전략을 중심으로*

이은영**

<차 례>

1. 머리말
2. 조선시대 표전의 분포와 유형
3. 표전 제술의 수사적 전략
 - 1) 구성과 배치의 전략
 - 2) 표현과 조식(藻飾)의 전략
4. 동문(同文)과 동구(同仇) 의식의 경계에서 : 대청 표전의 선택과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시대 대명(對明)·대청(對淸) 관계에서 지어졌던 외교문서인 표전(表箋)의 작품 분석을 통해 명분의 논리와 중화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사대(事大)의 내용을 담으면서도 국익과 실리라고 하는 현실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수사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살폈다.

개국초부터 표전을 둘러싸고 명과 갈등을 빚었던 조선은 명나라에서 제시한 표전식(表箋式)을 최대한 수용하되, 전달과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 전략을 구사하였다. 구성에 있어서 통상적 성격이 강한 사은표(謝恩表)와 하표(賀表)는 주제를 전면 배치하여 경하(敬賀)와 칭송(稱頌)의 의미를 크게 부각시켰고, 특별한 사정을 담아 명이나 청을 설득해야 했던 청표(淸表)의 경우는 의론(議論) 형식을 활용하여 논리성과 설득력을 먼저 확보한 후, 주제를 후면에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327-2008-2-A00470)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배치하였다. 많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실례가 될 수 있는 진위표(鎭慰表)의 경우에는 최대한 짧은 문장으로 글을 지었다.

표현 역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하였다. 정례적 사은표나 하표의 경우 미사여구와 대우, 전고를 활용한 정제된 변체(駢體) 형식으로 상대를 기쁘게 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주력하였다면, 갈등 상황에서 조선의 입장을 호소하거나 소통과 공감을 유도하여 원하던 외교 목표를 얻어내야 했던 청표(請表)와 몇몇 사은표(謝恩表)에서는 산체(散體)를 활용, 진정성과 절실함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구체적 묘사를 배제하고 추상화 이념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이유(阿諛)보다는 태평성세를 지속시키고 세계의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천자국의 자소(字小)의 책무가 사대(事大)와 이념과 함께 드러나게 하였다.

문형(文衡)의 이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공들여 지어졌던 표전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정책적으로 사대(事大)를 택한 대신, 글을 통해 국익과 국가적 자존심을 보존하고 명분과 실리 사이의 균형을 모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역대 평자들은 “아름다우면서도 절실한 것[婉而切]”을 잘된 표전의 조건으로 꼽았거니와 어휘 선정에서부터 문구의 배치, 수사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아름다운’ 글을 이루고자 했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구사하여 ‘절실함’에 이르고자 했던 조선시대 표전은 문학성 측면에서도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주제어 표전, 외교문서, 중화주의, 수사적 전략, 명나라, 청나라, 조선시대

1.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시대 대명·대청 관계에서 지어졌던 외교문서 표전을 한 시대의 문장으로 접근하여 그 기능과 의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선행 연구로 『조선시대 표전연구(1)』¹⁾에서 표전을 둘러싸고 벌

1) 『한국한문학』48집, 한국한문학회, 2011, 82-112면.

어진 외교 갈등의 양상과 조정의 대응, 제술 과정, 문인들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표전의 제술 관행과 보국(保國) 및 화국(華國) 문장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본고는 그 후속 연구로서 표전 작품의 분석을 통해 명분의 논리와 중화주의 세계관을 토대로 사대(事大)의 내용을 담으면서도 국익과 실리라고 하는 현실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수사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강한 목적성과 실용성 때문에 문학 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던 표전 양식을 한문학 연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대상 자료는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작품과 《한국문집총간》 수록 작품, 그리고 중국측에서 출간된 대청표전(對淸表箋) 자료집 『조선국왕래서』²⁾에 수록된 작품 등, 필자가 수집한 총 390편의 표전 작품이다. 제술시기와 제술자, 주 수록문헌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주 수록문헌	유형 및 작품수	제술자
조선초기 (태조-연산군)	조선왕조실록	사은표 159 하표 64 청표 21 진위표 11	정도전 권근 변계량 정충 최항 등
조선중기 (중종-광해군)	개인 문집	사은표 61 하표 59 진위표 5	강백년 구봉령 기대승 김상헌 김안국 신광한 신홍 임억령 이경석 이경여 이명환 이석 이정구 이호민 이항 장유 정백창 채유후 최립 등
병자호란 후 (인조)	조선국왕래서	사은표 2 하표 7 진위표 1	김광옥외 미상

2) 청대에 조선에서 보낸 咨文과 表文 등을 엮어 만든 책. 청에 굴복한 직후인 인조20년(1642)~인조21년(1643) 2년 간의 글들만 묶어 출간한 책으로 현재 대만 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을 소개한 이상돈은 「청대서적 조선국왕래서의 고찰」(『한중인문학연구』 13집, 2004)에서 이 시기가 조선의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는 굴욕의 시대였던 데 반해 반대로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영광의 시대였다는 점에서 편찬의 의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조선시대 표전의 분포와 유형

1) 시대별 분포

조선시대 표전은 크게 세 종류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술자의 문집과 『조선왕조실록』, 『괴원등록』, 『동문회고』 등의 외교관련 자료집과 『문원보물』 등 관각문 집성집, 그리고 중국측 문헌이 그것이다. 수록 문헌의 성격과 시대별 분포는 조선시대 표전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관건이다.

조선 초기 표전의 경우 『조선왕조실록』의 사행 관련 기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 특히 표전이 집중적으로 지어지는 시기는 태조~성종 때까지이다. 이는 이 시기에 들어서 대명 사행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³⁾과, 당시 정치 사안 중에서 외교 문제가 각별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행의 빈도와는 별도로 작품 전체를 실록의 기사로 수록하고 있는 것은 따로 관심을 요한다. 특히 이 시기가 표전 문구와 제술 방식을 둘러싸고 명나라와 긴장 관계에 놓였던 시기를 막 지나 국익을 위해 화국(華國) 문장(文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문장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던 시기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시기 표전의 실록 수록은 문장을 전범을 수립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우리 표전 문장에 대한 명나라의 찬사⁵⁾가 이

3) 대명사행의 횟수는 태조 7년간 56회, 태종 18년간 137회, 세종 32년간 198회, 성종 25년간 76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종 세종 때 가장 많고 성종 이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朝天使 條.

4) 여기에 대해서는 이은영, 『조선시대표전연구(1)』, 2011, 92-97면 참조.

5) 세조 때 명 英宗은 칙서로 표전 장주 이문 등 우리나라에서 보낸 글들이 모두 예식에 맞다고 흠족해 하였고 우리 표문을 보고 두 세 번 감탄하면서 “조선이 문인이 있다”고 칭찬하기도 하였다. 『패관잡기』 권2, 『세조실록』, 세조5년 11월 기묘 기사 참조.

어지고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조선시대 표전의 전형이 마련 되는 것도 이즈음이다.

그러나 이후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전문 인용된 표전을 보기 어렵다. 중기 이후의 표전은 주로 제술자의 문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16세기 문인의 문집에서 표전이 대량 확인되고 있다. 이는 이 시기가 명나라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돈독했던 때이고 표전 제술이 문형-대제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표전을 짓는 일이 영예로운 일로 여겨졌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립의 『간이집』의 경우, 실제 사용되었던 표전은 물론, 사정이 바뀌는 바람에 사용되지 않았던 표문까지도 수록⁶⁾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표전이 문장으로서 존중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반면 청나라가 들어선 후 지어진 표전은 문인들의 문집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병자호란 때 어머니를 잃은 김익희가 대제학에 임명되자 청나라에 보내는 사대문서를 지을 수 없다하여 시작하였다는 일화⁷⁾가 있거니와 이러한 사례는 당시 문인들에게 있어 대청표전을 쓰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내세우고 싶지 않은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때문에 이 시기 표전 작품은 외교문서 자료집과 관각문 집성집, 그리고 중국측 문헌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분량의 확보가 어렵고 확인되는 소수의 작품도 실제 제술자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⁸⁾ 심지어 청나라에서 모방까지 할 정도로 칭송을 들은 작품의 경우⁹⁾에도 제술자를 확인하기는 어렵

6) 『간이집』 1권에 수록되어 있는 「冬至賀表」, 「乾清坤寧二宮災慰表」, 「天兵再出謝恩表」 등 세 편은 실제 사용되지 못하였다.

7) 『효종실록』, 효종 7년 1월 무자.

8) 중국측 문서인 『조선국왕래서』에는 10편의 표전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제술자를 확인한 것은 金光煜(1580~1656)의 「先帝西征克捷의表」의 한 작품에 불과하다.

9) 崇德 7년 正旦表 는 把都魯 등이 황제에게 올리는 글에서 모방하였고 동년 5월 22日 錦州 松山 香山 塔山 4성의 대첩을 기린 표는 그해 8월 25일 懷公 智續順 등이 지은 「克捷松香塔四城表」에서 모방하였다. 松香塔四城의 대첩을 축하하며 황태자에게

다. 이 시기에 오면 표전에 대한 문인들의 인식이 문장의 완성도보다는 의리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옮겨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2) 유형별 분포

조선시대 표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은표(謝恩表)이다. 필자가 조사한 약 390편의 표전 중에서 사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명나라로부터 고명이나 책봉 시호 하사, 사제(賜祭) 등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허락과 협조를 얻었을 경우, 황제의 하사품·서적, 채백, 약, 곤룡포, 보대, 기명 등 하사품을 받았을 경우, 군사를 지원하여 변방을 안정시켜주었을 경우, 길을 내거나 성보(城堡) 등을 설치하여 사신 왕래의 편의를 도모해준 경우, 표류하거나 불모로 잡혀간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거나 죄를 짓고 도망간 죄인을 잡아 보내준 경우에 사은사가 파견되고 사은표가 전달되었다. 사은표가 많다는 것은 사은사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은표의 수적인 압도는 사행의 횡수와는 별도로 사은표의 제술 관행과 관련을 갖는다. 사은을 목적으로 한 사행에 보내는 사은표도 있었지만 겸행(兼行)이라 하여 진하사(進賀使)가 하표와 함께 사은표를 챙겨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은표를 가지고 갔다가 답례로 폐백이나 서적 등을 받아왔을 때 다시 답례의 사은표를 올리기도 하여 실제 사은사행의 횡수보다 많은 수의 사은표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사은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표(賀表)이다. 하표는 명·청에 축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가지고 갔던 표전으로 대개 황제나 황후, 황태자의 생일, 움츠렸던 양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동지와 한해의 첫날인 원일에 정례적으로 올렸다. 태평성세의 증거라고 하는 상서로

준 전문은 兀鎭親王 등이 「得錦松香塔四城作賀表」를 쓰면서 모방하였다.(『朝鮮國王來書』敍言)

운 조짐이 나타났을 때, 변방을 평정하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궁궐 등 중요 건물이 낙성되었을 때 등 축하할만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청표(請表)는 특별한 일에 처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 지어진 비정례적인 표전이다. 때문에 앞의 두 유형보다 수적으로 많지 않다. 책봉이나 사시(賜諡), 관복을 청할 때, 조공을 면하거나 덜어주기를 청할 때, 양국 갈등 상황에서 우리측의 입장을 호소할 때 주로 올렸다.

진위표(進慰表)는 주로 황제나 황후 황태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내는 위로의 표전이다. 간혹 궁궐에 화재가 나거나 국가적 재앙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보내기도 하였다. 역시 비정례적인 표전이기에 때문에 수적으로 많지 않다.

시은표, 하표, 청표, 진위표는 일정한 용도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시대별 편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명나라와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고 복잡한 왕위 계승 문제로 승습이나 고명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선초에는 청표가 눈에 띄게 보이는 반면, 대명 관계가 신뢰를 구축하고 국내 사정 역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조선 중기에는 청표보다는 의례적 차원의 사은표와 하표 위주로 지어지게 된다. 임진왜란 이후, 파병을 해준 명에 대해 ‘재조지은’의 메시지를 담은 사은표가 양산되는 것도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3. 표전 제술의 수사적 전략

1) 구성과 배치의 전략

통상 표전은 황제를 수신자로 하는 표(表)와 황후, 황태자에게 전달하

는 전(箋), 두 통의 글이 짝이 되어 지어진다. 표문만 보내던 관행이 명나라에 와서 표와 전, 한 짝으로 양식화된 것인데 이러한 형태는 청 건륭제가 전문을 올리지 말라는 상유(上諭)를 반포하기 전까지 이어진다.¹⁰⁾ 표와 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그 밑에는 본 내용과는 별도로 각각 방물을 보내는 뜻과 목록을 적은 방물표(方物表)와 전(箋)이 부기되어 있다. 황제와 황태자에게 따로 알리는 형태를 띠고 있고 있지만 실상은 동일한 내용을 거듭 전달하는 효과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개국초부터 조선과 표전 문제로 충돌하였던 명나라는 문서로 인한 갈등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표전식(表箋式)을 반포하였다. 일정한 양식을 제시하고 그 양식대로 표전을 지으라는 요구였다. 문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양국 관계에서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표전식은 그 이행 여부가 외교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행의 배열 방식, 글자 크기, 필사 양식으로부터 투식구 등 형식적인 조건은 물론 그들이 싫어할 수 있는 글자를 최대한 피하고 꼭 들어가야 할 중심 내용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¹¹⁾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표전식의 수용으로 변용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조선시대 표전 가운데 동일한 작품이 없다는 점이다. 내용만 놓고 보면 특별하달 것 없는 비슷비슷한 표전 가운데서 명이나 청으로부터 잘된 표전으로 칭송을 받은 작품이 따로 존재하고, 실제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낸 역사적 사례가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일정한 양식에 따라 글을 짓되 전달과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 전략을 구사하고

10) 『百度百科』「表箋」, “明清兩代 箋文用途有所改變 明代用以慶賀皇後 太子三大節之用 ... 乾隆六十年 乾隆皇帝發布上諭 停止箋文的進呈”

11) 이에 대해서는 이은영, 「조선시대 표전연구(1)」, 2011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있다는 의미이다. 표전의 유형별로 서술전략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1) 사은표와 하표의 경우

사행 목적이 유형화되어 있고 통상적인 성격이 강한 사은표와 하표의 경우 표전식으로 대표되는 체제와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땅의 상서는 이적을 나타내어 일대의 문명을 열었고 하수가 맑게 흘러 천 년의 청명으로 보유했으니, 일월이 임하여 비추는 곳마다 모두 다 기뻐 춤을 춥니다. 듣건대, 성신이 흥기할 때 항상 상서가 이른다 하였습니니다. 하 우 때에는 낙서가 나왔고, 주나라 때에는 바다에 물결이 일지 않았습니니다. 하물며 신령한 상서가 잇달아 이르는 지금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니까? 더더 욱 이는 태평성대의 아름다운 상서입니다.

대개 아뢰건대, 진중하고 명철하심은 순 임금과 같고, 넓고 깊으심은 탕 임금을 능가하십니다. 정일(精一)함으로 중(中)을 잡으시어 마음의 근원을 밝혀 치도를 내셨고, 집희(緝熙)의 학문으로 공경스레 행동하시어 덕을 밝혀 이륜(彝倫)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못 치적이 한테 엉기고 아름다운 징조가 자주 나타났습니니다. 이에 사방의 하례를 받으시어 실로 만세 태평의 터전을 이루었습니다.

생각하건대, 멀리 변방의 나라를 지키다가 경사로운 상서를 만남을 기뻐 합니다. 각별히 제후의 본분을 준행하여 늘 강물이 바다로 가듯 생각할 것이며, 항상 성수(聖壽)가 천지와 함께 유구하길 빌겠습니다.¹²⁾

12) 권근, 『양촌집』 『賀龜見河清表』, “坤珍效異 開一代之文明 河水流清 應千年而瑩澈 照臨所暨 扞舞惟均 竊以嘗聞聖神之興 必有禎祥之至 洛出書於有夏 海不波於成周 況今靈貺之荐臻 尤是盛時之嘉瑞 茲蓋云云 潛哲齊舜 廣淵邁湯 精一執中 澄心源而出治道 緝熙敬止 明己德而敘彝倫 昭庶績之咸凝 致休徵之屢現 爰受四方之來賀 實基萬世之大平 伏念邈守邊封 欣逢慶瑞 恪遵侯度 每懷江漢之朝宗 恒祝皇齡 願獻乾坤之悠久”

권근이 지은 <하구견하청표(賀龜見河淸表)>이다. 명나라에 거북이가 나타나고 황하의 물이 맑아지는 이적이 나타나자 이를 하례하기 위해 보낸 표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륙금침(四六金鍼)』을 지은 진기년(陳其年)은 하표(賀表)의 체제로 과제(破題)- 송성(頌聲)- 술의(述意)의 순서를 제시한 바 있는데¹³⁾ 이 글 역시 전형적인 하표의 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상서로운 거북이 나타나고 늘 황톳물이 흐르던 하수에 맑은 물이 흐르는 이적이 나타나는 광경, 여기에 일월로 상징되는 황제가 임하는 곳마다 기뻐하는 백성의 모습 등을 통해 경하의 주제 -태평성세-를 서술하고 【과제】 이러한 태평성세를 이룩한 황제의 덕을 칭송 【성송】 한 다음, 태평성대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황제의 수를 빌고 번신으로서 충성을 다짐 【술의】 하는 내용이다.

상례적 성격이 농후한 사은표나 하표의 경우 이렇게 경하하거나 사은할 내용을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다. 그 내용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점에서 주제의 전면 배치는 경하와 칭송의 의미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게 된다.

(2) 청표의 경우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쓰게 되는 청표의 경우, 상례적 차원에서 지어지는 하표나 사은표와는 문장 구성과 배치를 달리한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웃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 숨김

13) 진기년의 설은 심경호, 『한문 산문의 미학』, 고려대 출판부, 1998, 387면에서 재인용. 표전은 일정한 양식을 구비해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역대 문체론과 문장론에서는 양식성과 전형성을 작품 평가의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

이 없어야 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생각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리입니다. ...(중략)... 지금 황제 폐하께서 인덕을 미루어 차별 없이 사랑하고, 교화를 융성히 하여 외국에까지 미치시는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 번 친왕의 복장을 내리시니, 특별한 은혜와 은택은 비록 천지의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자식을 보호하는 정성이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신이 다만 화이를 구분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정을 진술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천지와 부모로써 폐하를 우러러보지 않고 차별이 없는 인덕과 외국까지 미치는 교화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의 나이 이미 늙었는지라, 잠잠히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진술할 날이 시기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신이 황제의 위엄을 무릅쓰고 감히 진술하면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신의 그만둘 수 없는 청을 용서하시고 신의 마음속에서 울려 나오는 정성을 살피시어, 특별히 윤허하시는 조칙을 내리시고 특별한 은택을 입게 하소서 ...(하략)... ”¹⁴⁾

세종 때 세자의 면복을 청하기 위해 보낸 청표이다. 글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소통을 할 때는 서로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천하의 공통된 의리’를 거론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태조와 태종이 구류면복을 하사받은 선례를 소개한다. 고황제 이래로 우리나라는 비루한 외국이 아니라 친왕과 비등하게 대우 받는 관계였다는 것과 감히 스스로 친왕에게 견줄 수 없어 머뭇거렸으나 만일 스스로를 외국으로 구분하여 사정을 진술하지 않는다면 천지와 부모로 폐하를 우러러 보지 않고

14) 『세종실록』, 세종 28년 8월 27(임술) “臣竊惟上之於下 要使言而無隱 下之於上 苟有懷則必達 此天下之通義也 ... 今遇皇帝陛下仁推一視 化隆無外 累賜親王之服 殊恩異澤 雖天地之愛物 父母之保子 無以踰焉 臣於此時 徒以華夷之分而引嫌不陳 則是不以天地父母望陛下 而自外於一視之仁 無外之化也 況臣年齒已衰 而猶且含默 則摠抱之日無期矣 此臣所以冒昧敢陳而不能自己者也 伏望皇帝陛下恕臣無已之請 諒臣由衷之懇 特降俞音 澳霈殊尤之澤...”

차별없이 베푸는 인덕과 외국까지 미치는 교화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서두부분이다. 면복을 내려달라는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렇게 해줄 경우 은혜에 감사하겠노라는 주 내용은 그 다음에 놓여있다.

이렇게 청표는 사은표나 하표와 달리는 주제를 후면에 배치한다. 특별한 사정을 담아 중국을 설득해야 하고 설득이 관철되어 실제적 성과를 얻어내야 했던 청표의 경우, 의론의 형식을 빌어 청원의 당위성을 먼저 피력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현실적 여건과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여 논리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진위표의 경우

사연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설득력과 공감을 확보해야 하는 청표나 미사여구를 나열하여 상대를 기쁘게 해야 하는 사은표 하표와 달리 진위표는 할 말을 최대한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완곡하게¹⁵⁾ 서술한다.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문득 자애로운 모습을 숨기시니, 온 천하가 의지할 바가 없어 모두 다 슬퍼합니다. 바라건대, 적당한 예법에 따라 성황(聖皇)의 슬픈 회포를 조금 억제하소서.¹⁶⁾

명 황태후의 죽음에 대해 보낸 진위표의 전문이다. 진위표가 이렇게 짧

15) 특히 죽음에 대한 묘사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이루어졌다. 죽음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으로 “하늘이 뉘를 내려 선어를 타고 하늘로 돌아가셨대[昊天降割 仙馭上賓]”거나 “갑자기 용儀를 감추었다[奄秘容儀]”거나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昊天不弔]” 등을 들 수 있다.

16) 『세조실록』 세조 8년 12월 8일 (무진), “昊天不弔 奄秘慈儀 率土無依 悉均哀慕 冀循中制 少抑聖懷”

게 지어졌던 것은 상대의 죽음이나 불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슬픔에 대해 많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실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명나라의 구묘(九廟)가 화재를 입었을 때 “인애하는 마음을 하늘이 보인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 말이 관용적으로 실덕한 임금에게 재앙을 내어 경고를 보인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하여 고쳐짓는 사례¹⁷⁾가 있었고, 명에서 재앙을 맞아 사면령을 반포하였을 때 “미사여구를 써서 표전을 보내는 것은 의에 있어서 온당치 않다”고 하여 보내지 않은 사례¹⁸⁾도 있었으니, 짧고 완곡하게 쓰는 것은 예를 표하면서 외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생각된다.

2) 표현과 조식(藻飾)의 전략

(1) 미사여구와 전고(典故)의 변주: 변체(駢體)의 활용과 이념화의 전략

표전식을 주도한 명 태조 주원장은 화려한 문사와 이에 따른 내용의 부실, 문풍의 쇠미를 이유로 들어 사륙문을 금지하고 산문으로 이루어진 표전을 쓰도록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사륙문, 즉 변체 형식의 표전을 고집하였다. 변체는 산체와 달리 4·6구를 사용하고 대우를 추구하며, 전고와 미사여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즉 장식적 기능을 중시하고 소리의 조화를 추구하는 극도로 다듬어진 형태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음성 체계가 중국과 달랐던 까닭에 평측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만¹⁹⁾ 나머지 변체의 조건은

17) 『중종실록』 중종 36년 9월 병신

18) 『세종실록』 세종 25년 6월 28일 (辛亥)

19) 광해군 때는 동지에 진하표전의 평측이 틀렸다고 하여 다시 쓰게 한 사례도 있었고, 정약용 때 오면 아예 “변문에서 평측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어서 중국에 보낸 하표 등이 평측에 맞지 않아 웃음거리가 된다”고 하기까지 하였다. 『광해군 일기』 광해 8년 8월 7일(을사), 『여유당전서』, 『문체책』 참조.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켰다.²⁰⁾ 변체를 고집했던 이유는 아이러니 같아도 주원장이 사륙문을 금지한 이유와 정확히 일치한다. 변체는 심미적 장식적 기능이 우세한 미문양식이었기 때문이다. 미사여구 전고의 적절한 활용은 상대를 추켜세우거나 기분 좋게 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정제된 양식의 문장의 능란한 구사는 조선의 문화적 수준을 드날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었다. 특히 정례적이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실제 표전 갈등이 가장 많이 야기되었던 사은표와 하표의 경우²¹⁾ 거의 대부분이 변체로 지어졌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로써 멀리 황복(荒服)에 있으면서 공손히 제후의 도리를 부지런히 하고 있었으나 조그마한 공효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황제의 사사로운 정을 입어서 광주리에 은혜가 실로 깊었으니, 은총의 영광이 이에 이른 것은 전에 드물었던 바입니다.²²⁾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로 폐봉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반에 참례할 수 없어 남산의 축수만 부질없이 올리고, 봉궐로 마음을 내달려 북극성 있는 곳을 같이 우러릅니다.²³⁾

20) 필자가 조사한 표전 자료 가운데 하표와 사은표는 거의 대부분 변체로 이루어져 있다. 변체라 하더라도 흔히 변체와 산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 시대 표전의 경우에는 완벽한 변체를 지향했다.

21) 1차 표전 사건과 3차 표전 사건은 하표로 인해 유발되었다. 이후 문구와 형식을 두고 계속된 표전 갈등도 대부분 하표와 사은표가 동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은영, 『조선시대표전연구(1)』, 2011, 87-92면 참조.

22) 『세조실록』 세조 7년 4월 6일(병자) 사은표 “伏念臣猥以庸賈 邈居荒服 祗勤侯度 功未效於毫毛 特荷宸私 恩實深於筐篚 寵榮至此 前昔所稀”

23) 기대승, 『고봉집』, 『朝鮮國王賀新皇帝登極表』, “伏念猥將庸質 叨守弊封 跡阻鷓班 空祝南山之壽 心馳鳳闕 長瞻此辰之居”

앞의 예문은 황제의 선물을 받고 보낸 사은표의 서두 부분이고 뒤의 예문은 신황제가 등극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보낸 하표의 마무리 부분이다. 흔히 표전에서 주체인 조선의 임금은 늘 ‘자질과 역량이 보잘 것 없고’ ‘덕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부지런히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효를 거두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청구(靑丘)” “제잠(鯤岑)” “접역(鰈域)” “폐방(弊邦)” “한번(漢蕃)” “번병(藩屏)” “폐봉(弊封)” “동표(東表)” “소방(小邦)” “봉강(封疆)” “황예(荒裔)” “청사(靑社)” “하예(遐裔)” “변복(邊服)” “황복(荒服)” 등 표전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칭의 표현들은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겸사와 비칭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극대화된 비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존재(황제)’에 대한 극대화된 칭송과 맞물려 있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의 총명은 순 임금과 같고 공적은 요 임금과 비슷합니다. 이제(二帝)가 옛날 봉한 곳에 남시자 큰 고을이 새로워졌고, 삼왕(三王)의 지극한 치세(治世)로 오르시자 하늘과 짝이 되었습니다.²⁴⁾

삼가 생각건대 관대하고 온후하고 인자하고 성스러우신 황제폐하께서는 총명함으로 보위에 임하시고 신성한 무력으로 생명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교가 중원 밖까지 교화하니 억조 백성들이 신침이 되고 병사를 미연에 제압하니 만 리의 오랑캐를 무찔렀습니다. 황제의 군사가 명령을 잘 받들어 사성에서 뛰어난 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랑캐가 길로 나와 다투어 귀의하니 살리시는 덕 때문이요, 여염에선 담을 이루며 모두 칭송하니 무적의 인 때문입니다²⁵⁾

24) 변계량, 『춘정집』, 『賀駕幸北京表』, “欽惟聰明齊舜 文思協堯 就二帝之舊封 式新大邑 登三王之至治 克配皇天”

25) 『조선국왕래서』, <賀捷錦松杏塔四城表> “欽惟寬溫仁聖皇帝陛下 聰明有臨 神武不殺 暨聲教於化外 臣妾兆人 制兵要於幾先 折衝萬里 是致六師之用命 遂收

표전에서 황제는 요순(堯舜)으로, 황제가 다스리는 당대는 이제(二帝)·삼왕(三王)의 시대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요순시대보다 더 위대한 시대로 칭송되기도 한다. 도와 합치되는 태생적 완결성에 요순 우탕과 같은 인격적 완벽성을 구비하고, 만이나 이적 등 복종하지 않는 나쁜 무리에 대해서 성스러운 무력을 떨치지만 풀 한 포기 미미한 생물 하나까지도 살리고 포용하는 전형적인 성인의 모습이다.

과식(過飾)과 찬사, 비칭과 검사가 맞물려 서술되는 이러한 표현 전략은 일차적으로 상대를 기쁘게 하는 심미적 효과를 가져온다. 미사여구의 활용 빈도가 높을수록, 검사와 찬사의 상대적 진폭이 크면 클수록 심미적 효과는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표전의 목적이 양국의 명분관계를 엄격히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제후국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대의 도리를 밝히는 데 있다면, 변체가 포함하고 있는 장식적 기능은 ‘사대’라고 하는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포착해야 하는 단서가 있다. 미사여구와 과다한 칭송 속에 내포된 또다른 수사적 코드이다.

황제는 성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극찬되지만 전혀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경전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거나 전고를 활용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할 따름이다. 예컨대 황제를 칭송하는 문맥에서 흔히 등장하는 “온공윤색(溫恭允塞)”은 『서경』에서 순임금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다.²⁶⁾ “내성내신(乃聖乃神)”“내무내문(乃武乃文)” 등의 표현은 『서경』에서 요임금의 덕을 묘사한 부분²⁷⁾이며 ‘강건중정(剛健中正)’은 『주역』

四城之奇功 髦倪載塗爭歸 好生之德 閭閻按堵咸稱 無敵之仁”

26) 『서경』『순전』, “曰若稽古帝舜 曰重華協于帝 濬哲文明 溫恭允塞 玄德升聞 乃命以位”

27) 『서경』『대우모』, “益曰 都 帝德廣運 乃聖乃神 乃武乃文 皇天眷命 奄有四海 爲天下君”

건괘에서 성인의 덕을 지닌 천자에 대해 언급할 때 쓴 구절²⁸⁾이다. 투식성이 농후한 표전의 마지막 대목 또한 마찬가지이다. 축원의 문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남산수(南山壽)” “강릉수(岡陵壽)” “호배지성(虎拜之誠)” “주아지송(周雅之誦)” “홍범지강녕(洪範之康寧)”²⁹⁾ 등은 『시경』과 『서경』에 등장하는 말이다. “축어곤잠(祝於鯤岑)” “주침해옥(籌添海屋)” “화봉지축(華封之祝)” “중윤지사(重潤之辭)” “초화지송(椒花之頌)” “규곽지성(葵藿之誠)” “송악지호(嵩嶽之呼)” “헌근지성(獻芹之誠)”³⁰⁾ 등도 예부터 관습적으로 써오던 표현들이다.

경구와 전고, 관습적 표현의 활용은 글에 권위와 신뢰성을 부여하고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 간에 심리적 공감을 유도할 뿐 아니라 표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대상과 구체적 사안에서 사실성 개별성을 거세하게 되고, 구체적인 맥락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대상을 이념화 보편화 한다. 즉 전고를 통해 묘사된 황제는 살아 숨 쉬는 한

28) 『주역』 『건괘』 “大哉乾乎 剛健中正 純粹精也”

29) “南山壽”와 “岡陵壽”는 임금에게 장수를 축원하는 말로서, 『詩經』 『小雅 天保』에 나온다. “虎拜”는 만년토록 강녕한 복을 받을 천자라는 뜻으로 『시경』 『大雅 江漢』에서 “召虎가 엎드려 절하고 천자의 만년을 빌었다. [虎拜稽首 天子萬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周雅誦” 역시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원한 『시경』의 시를 가리킨다. “洪範”은 홍범의 내용 중에서 다섯 번째인 九五福을 가리키는데, 첫째는 壽이고, 둘째는 富이며, 셋째는 康寧이고, 넷째는 德을 좋아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다.

30) “鯤岑”은 『莊子』 『逍遙遊』에서 크기가 몇 천리인지 모른다고 한 고기의 이름으로 흔히 장수를 상징한다. “籌添海屋”은 신선이 산다는 해옥에 仙鶴이 매년 한 개 씩 물고 온다는 전설에서 나온 것이고 “華封之祝”은 華封人이 堯 임금에게 壽와 富와 多男을 기원했던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며, “重潤”은 漢나라 光武帝의 태자를 위하여 바친 樂章 가운데 하나로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椒花之頌”은 晉나라 劉臻의 처 陳氏가 조정에 바친 신년 축하 시로 역시 장수를 기원하는 노래이며, “葵藿之誠”은 아래사람이 위사람을 충심으로 따르는 해바라기를 비유한 말이고 “獻芹之誠”은 『열자』에 나오는 말로 임금에게 바치는 변변치 못한 정성을 의미한다.

사람이 아니라 전범화된 유가 이념 속 ‘성군(聖君)’이다. 그가 다스리는 시공간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는 ‘당위적 현실’이자 ‘이상 세계’이다. 따라서 요순으로 추앙하는 것은 곧 요순이 되라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살리는 덕과 무적의 인, 성무(聖武)를 예찬 하는 것 역시 생명을 죽이거나 약소국을 짓밟는 무력이어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담고 있다. 태평성대에 대한 구가는 하늘로부터 받은 천명을 사해에 베풀어 하늘의 뜻을 구현하라고 하는 강한 규제이다. 사대(事大)라고 하는 표면적인 주제 이면에는 천자국의 책무, 즉 태평성세를 지속시켜야 하고 사해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 ‘자소(字小)’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상대를 한껏 추앙하는 표현 방식에서 굴종이나 아유 이상의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2) 소통과 공감의 유도: 散體의 활용과 설득의 전략

정례적 사은표나 하표가 미사여구와 대우, 전고를 활용한 정제된 변체 형식으로 상대를 기쁘게 하고 안정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갈등 상황에서 조선의 입장을 호소하거나 소통과 공감을 유도하여 원하던 외교 목표를 얻어내야 했던 특수한 경우, 보다 치밀하고 섬세한 표현 전략이 필요했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설득력을 확보해야 했고 진정성과 간절함을 전달해야 했다. 그 때문에 청표를 비롯하여 정서적 소통이 요구되었던 몇몇 사은표 등에서는 장문의 산체(散體)가 활용되었다.

삼가 생각건대, 하늘은 사람을, 아버지는 자식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람이나 자식이 정말 다급한 사정과 괴로운 고통이 있을 경우 반드시 황급히 하늘이나 아버지를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천하의 상리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과 아버지처럼 사해의

안팎에 임하시어 만물로 하여금 모두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필부필부로 하여금 자신의 구실을 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도 혼자 걱정하고 답답해하면서 위에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폐하를 하늘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한 번 말씀드리는 바이니, 폐하께서는 굽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생각건대, 소방이 토질이 척박하여 금은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천하가 다 같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고향제 홍무 5년 10월에 중서성에서 하교를 받았는데, 그 하교에 “예로부터 멀리 변방에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바치는 것은 예물로 정성을 표시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조공하려 올 때는 그 지방에서 나는 배 3, 5대(對)를 넘지 않게 하여 편리하게 성의를 표하게 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가지고 오지 말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 정월 초하룻날에는 배만 받아들이고 그 밖에 금은의 그릇은 모두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는 대체로 고향제께서 만 리를 훤히 내다보아 우리나라에 금은이 생산되지 않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임금께서 그 지방에서 나는 물건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신 의의와 똑같은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옛날의 성인이나 후세의 성인이 그 궤도는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당시에는 원 나라 상인들이 장사 목적으로 가지고 온 금은이 얼마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방에서 옛날처럼 바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간에 쓸 대로 다 써 버려 국고가 이미 바닥이 났고, 심지어는 집집마다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온 나라 가정에 소장된 금은이 하나도 없으니 사세가 몹시 궁핍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이 침묵을 지키지 못하고 고충을 피력하여 천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이 또 스스로 생각해 보니, 신의 할아버지 강헌왕께서 특별히 고향제의 은총을 받아 이미 왕작을 허락받았고 또 나라의 이름까지 하사받았습니다. 신의 아버지 공정왕과 신도 잇달아 고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3대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융성한 총애와 빈번한 포상이 내리지 않은 해가 없고 이루다 기록할 수도 없으니, 사서를 상고해 봐도 소방이 오늘날처럼 성은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이 성은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도 잊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있는 금은이 없다고 핑계 대면서 늘 바치는 조공을 폐하고자 폐하를 기만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이 말은 실로 충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황천의 상제와 산천의 귀신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곁에서 주시하고 있는데 신이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신이 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신의 번거로운 말을 용서하시고 신의 절박한 심정을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멀리는 우 임금의 좋은 제도를 상고하고 가까이는 고향제의 유훈을 계승하시어, 천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인을 본받고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마음을 미루어 특별히 윤희를 내려 금은의 조공을 면제하는 대신 토산물을 바치게 해 주소서. 그러면 어찌 신과 일국의 신민, 부모만 성화의 가운데서 환호하고 기뻐 춤추겠습니까. 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령도 구천에서 감읍할 것이고, 신의 자손 대대로 천만세까지 깊은 자애와 후한 은택을 영원히 입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제폐하께서는 조금이라도 살펴주소서³¹⁾

31) 변계량, 『춘정집』, 『請免金銀表』, “竊惟天之於人 父之於子 仁愛之至也 故人之於天 子之於父 苟有窘迫之情 疾痛之苦 則必疾呼而求救者 天下之常理也 欽惟皇帝陛下天覆父臨於四海之內之外 使萬物咸遂其生 匹夫匹婦 皆獲自盡 而臣有無可奈何之事 徒自憂戚鬱悒 而不上達 則是不以天與父母望陛下也 臣試陳之 伏惟陛下垂察焉 竊念小邦 土地褊薄 不產金銀 天下之所共知也 故太祖高皇帝洪武五年十月 中書省欽奉聖旨 節該 古來藩邦遠國 其所貢獻 不過納贄表誠而已 今後將來的方物 只土產布子 不過三五對 表意便了 其餘的都休將來 至七年正朝 只受布匹 其餘金銀器皿 並皆發回 茲蓋高皇帝明見萬里 灼知小邦之不產金銀也 實與神禹任土作貢之義 昭合無間 豈非所謂前聖後聖其揆一也者乎 第緣其時元朝客商輿販到 些少金銀猶有存者 小邦進獻仍舊 遂至于今 數十年間 用度罄盡 公藏已竭 以至家抽戶斂 舉國陪臣之家 無有蓄金銀器者 事窘勢迫 此臣所以不敢含默 數陳心腹 仰觸天威者也 臣又自念 臣祖先臣康獻王諱 特荷高皇帝之眷佑 既許王爵 且賜國名 臣父先臣恭定王諱及臣諱 連受詔命 凡三世將四十年于茲矣 寵異之隆 賞賚之頻 殆無虛歲 不可殫記 稽諸書史 小邦之昵被聖恩 未有如今日者也 臣之所以欲圖報聖恩於萬一者 未嘗頃刻而忘于懷 又安敢以有爲無 欲廢常貢 以欺天聽也哉 臣之此言 實出至情 皇天上帝 山川鬼神 臨之在上 質之在旁 臣

변계량이 제출한 이 표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금은을 공물로 바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한 작품이다. 제법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글의 서술 전략은 부자 관계의 설정에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늘과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다급한 사정과 고통을 말하듯 지금 사정을 말하는 것은 곧 부모에게 아되는 자식의 마음이라는 설정이다. 그리고는 어려운 사정을 하나하나 들어 말한다. 우리나라는 토양이 척박하여 금은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 고향제 역시도 성의를 표하는 배만 받아드리고 금은 그릇은 모두 돌려보낸 적이 있고 이는 우임금이 그 지방에서 나는 물건으로 조공을 바치게 한 의의와 똑같다는 것, 지금까지 그나마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원나라 상인이 장사 목적으로 가지고 온 금은이 남아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조선은 선조대부터 명의 고명을 받고 성운을 입었는데 감히 핑계대면서 속일 수 있겠느냐는 것 등이다.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하늘이나 아버지를 불러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천하의 상리(常理)라는 말 속에는 이미 사람과 자식의 어려움에 공감해야 하는 하늘과 아버지의 상정(常情)이 전제되어 있다. 성인[우임금]도 그랬고 그대의 조상[고황제]도 그랬다는 문맥 속에는 지금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가 내포되어 있다. 금은 조공을 바치기 어렵다는 절박한 고민을 현재 이곳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상리 차원의 보편적 문제로 확대하고 조상으로부터 후손까지 이어지는 각별한 관계 속에서 해결을 요청한 것은 논리와 공감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제술자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敢誣哉 臣敢誣哉 伏望皇帝陛下恕臣辭煩 憐臣情迫 遠稽神禹之令典 近述高皇帝之大訓 體天地愛人之仁 推父母保子之心 特降俞音 許免金銀之貢 代以土地所產 則豈惟臣與一國臣民父老權欣鼓舞於聖化之中也哉 臣祖若父之靈 亦且感激於冥冥之中 而臣之子子孫孫 永被深仁厚澤於千萬世之無期矣 欽惟皇帝陛下小垂憐焉”

이 작품은 실제로 “정치하고 간절하다[精切]”는 평가와 함께 금은으로 바치던 공물을 영구히 없애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글이다. 이 작품처럼 실제 외교 갈등을 해결한 많은 표전들은 산체를 형식적 틀로 하여 논리적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강화하여 지어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명나라와의 관계가 평탄하지 않았던 조선 초기에 명나라가 조공을 막고 사신의 입국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조선 측의 입장을 전달한 표전³²⁾이나, 임진왜란 직후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주었다고 하는 이른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담고 있는 표전³³⁾ 들은 절절하고 핍진하다. 평자들이 표전의 명문으로 뽑고 있는 작품들- 예컨대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와 이밀(李密)의 <진정표(陳情表)>, 공융(孔融)의 <천예형표(薦禰衡表)>, 조식(曹植)의 <구통친친표(求通親親表)>등³⁴⁾이나 외교 갈등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는 고려 때의 작품들- 예컨대 박인량의 <상대요황제고주표(上大遼皇帝告奏表)>, 이승인의 <청시표(請諡表)><청승습표(請承襲表)><진정표(陳情表)>, 정도전의 <신우청승습표(辛禱請承襲表)>³⁵⁾ 또한 진정성과 절실함을 구비했다고

32) 『태조실록』 태조 2년 8월 2일(을해) 기사 속 표문과 태조 3년 6월 7일(을해) 표문 참조.

33) 대표적인 작품으로 최립『간이집』, 『天兵再出謝恩表』, 장유 『계곡집』 『降勅獎諭謝恩表』, 신홍 『상촌고』, 『漂流人解送謝恩表』, 『誥冕補賜謝恩表』 등을 들 수 있다.

34) 『출사표』는 蜀漢의丞相이었던 제갈량이 위나라 정벌을 결행하면서 後主인 劉禪에게 비장한 각오를 담아 올린 장문의 표문이고 『진정표』는 晉武帝가 이밀을 太子洗馬로 임명하자 개가한 어머니는 대신해서 자신을 길러준 늙고 병든 조모 곁을 차마 떠날 수 없는 사정을 간곡히 써서 면직을 청한 표문이다. 『薦禰衡表』는 예형을 천거하며 올린 표이고 『求通親親表』는 형에게 미움을 사서 친척들과 왕래하지 못하게 된 격리된 고충을 토로한 글이다.

35) 박인량의 작품은 요나라에서 압록강을 넘어와 땅을 점령하려 할 때 침략 행위를 중지하도록 한 글이고 이승인의 작품은 공민왕이 시호를 얻고 父祖의 봉작을 이어 받으며 금·은·말·배를 면제받는데 큰 기여를 한 글이다 정도전의 작품은 명의 고향 제로부터 “표의 말이 간절하다”는 칭송을 들으며 우왕의 승습을 이끌어낸 글이다.

알려져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 표전이 가진 설득력과 호소력은 좋은 표전의 조건이기도 한 셈이다.

4. 동문(同文)과 동구(同仇)의식의 경계에서:

대청 표전의 선택과 의미

『중용』에 “지금 천하를 보건대, 수레는 바퀴를 같이하고 글은 문자를 같이하고 행동은 윤리를 같이 한다.”³⁶⁾라는 말이 있다. 중화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이 제도와 문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이른 말이다. 조선후기 외교 자료집 『동문회고(同文彙考)』는 『중용』의 ‘동문(同文)’ 개념에서 제목을 따왔거니와, 표전이야말로 일정한 양식을 토대로 같은 이념과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 사이에서 같은 글자[한자]로 이어지는 동문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문 의식은 같은 이념과 문화를 벗어난 세력에 대해서는 양이(攘夷), 적개동구(敵愾同仇) 의식을 수반한다.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패역스러운 북방 오랑캐들이 오래도록 왕사(王師)에게 정벌하는 수고를 끼치게 할 줄을. 변방의 강역을 슬그머니 점거 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수레를 가로막은 죄를 피할 수 없는데 급기야는 수도까지 넘보며 쳐들어왔으니 바야흐로 박상(剝牀)의 화가 심각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신명과 같은 뛰어난 황상의 계책에 힘입어 끝내 추악한 무리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였습니다. 흉악한 도적의 괴수를 죽여 구경거리로 삼으면서 발광하는 미친개들을 통쾌하게 쓸어버렸고, 해로운

36) 『중용장구』 제28장, “今天下 車同軌 書同文 行同倫”

별레들을 관문 밖으로 몰아내어 강역에서 더러운 비린내가 모두 없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황국도 영원히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소방 역시 아무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³⁷⁾

오랑캐를 무찌르는데 대한 하례의 표문이다. 명나라를 침범한 적은 “패역스러운 북방 오랑캐”, “도적의 괴수”, “발광하는 미친개”, “해로운 벌레들”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묘사된다.³⁸⁾ 중국 또는 중화문명에 무력 침탈을 하고 있는 이적들에 대해 극단적 배타심 증오심을 표출하고 이를 피아(彼我)/ 선악(善惡)의 대립 구도로 가져감으로써 토벌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편’에 섰다는 것은 단순히 우호적이고 친밀한 명과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와 도덕이 존재하고 중화와 문명을 같이하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淸)이 중원을 장악하게 된 후 올린 대청표문에서는 피/아, 제하/이적, 선/악의 대립 구도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기존의 명[중화]-청[이적]의 구도가 청[중화]-명[이적]의 구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우뢰와 벼락같은 황제의 위엄 진동하여 무적의 군대 흥기하니, 달처럼 성화처럼 달려 보기 드문 경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함께 기뻐하고 신하와 백성들도 기쁨에 넘쳐 흐릅니다. 삼가 생각건대 관대하고 온화

37) 이석, 『택당집』, 『賊退進賀表』, “豈意羯奴之桀逆 久煩王旅之徂征 竊據邊疆 罪已稔於當轍 侵陵京輔 患方深於剝床 幸賴睿算之如神 終致醜類之褫魄 取鯨鯢以封觀 快芟獍狂 毆蠹蟲而出關 盡沃腥穢 皇圖永固 邦域無虞”

38) 오랑캐를 짐승의 무리로 표현한 것은 『춘추좌씨전』 『閔公 원년』조에 “용적은 송냥이나 늑대와 같은 존재이니 욕심을 끝까지 채워 줄 수가 없고, 중국의 제후들은 친근하게 대해야 할 대상이니 포기하면 안 된다. [戎狄豺狼 不可厭也 諸夏親暱 不可弃也]”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표전에서도 오랑캐는 “蛇豕” “梟獍” “小醜” “犬羊” “禽獸”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고 인자하고 성스러운 황제폐하께서는 크게 큰 계책을 크게 펴시고 밝게 위대한 천명에 응하셨습니다. 지극한 인을 미루어 사해를 적시니 대소가 모두 그리워하였고 장구한 계책을 펼쳐 정벌하니 원근의 백성들이 모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이 모인 바이니 마땅히 묘당의 계책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동이를 거꾸로 세운 듯한 거침없는 군사들은 깊이 협조한 관하로 들어가고 대를 쫓아듯한 통쾌한 형세로 곧장 서주와 연주의 터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무(聖武)를 널리 밝혔으니 실로 이는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한낱 폐복만 지키면서 갑옷하나 돕지 못하였습니다. 강역이 아득하여 비록 호배의 반열에는 끼지 못하지만 지척에서 공경히 대하며 실로 연하의 정성을 배나 바치겠습니다.³⁹⁾

중국측 자료집 『조선국왕래서(朝鮮國王來書)』에 수록된 작품으로 <선제서정극첩적표(先帝西征克捷的表)>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청이 명나라를 정벌하고 거둔 전승을 축하한 글이다.⁴⁰⁾ 문집에서 동일 작품이 발견되고 있어 김광욱이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⁴¹⁾ 청에게 굴복한 직후 지어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자발적 동기에서 지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당시 인조는 “치하와 찬양의 어구만 쓸 것이요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식의 어조는 피하라”고 당부했다고 하거니와⁴²⁾, 명 정벌을 ‘성무(聖武)’로

39) 『조선국왕래서』『先帝西征克捷的表』, “伏以雷威震疊 既興無敵之兵 月捷星馳 獲觀非常之慶 歡均動植 喜溢臣民 欽惟寬溫仁聖皇帝陛下 誕御鴻圖 光膺駿命 推至仁以洋洽 大小咸懷 振長策而徂征 遠近畢至 斯天意之允屬 宜廟略之益弘 師如建瓴 深入關河之阻 勢成破竹 直擣徐兗之墟 惟茲聖武之布昭 實是前牒之罕有 伏念臣徒守敝服 未贊戎衣 疆場悠綿 縱阻虎拜之列 咫尺對越 實倍燕賀之忱”

40) 당시 심양에 볼모로 가 있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대명정벌을 위한 西征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하여 소현세자는 2회 봉림대군은 4회에 걸쳐 대명서정에 참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최소자, 『청과 조선』, 혜안, 2005, 148면 참조.

41) 본고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청표전 중 유일하게 제출자가 밝혀진 글이다. 김광욱의 『竹所集』에는 『奏捷降勅進賀表』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42) 이상돈, 『청대서적 조선국왕래서의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13집, 2004, 414면.

규정하고 ‘지인(至仁)’ ‘천의(天意)’로 표현하는 데는 고민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대명 표전에서 볼 수 있었던 원색적인 적개감이나 동구(同仇) 의식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명에 대한 고민과 배려였다고 생각된다.

『조선국왕래서』에는 명나라와 소통하다가 발각되어 견책과 징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용서하겠노라는 조서가 내려오자 그 고마움을 전한 사은표⁴³⁾, 명나라의 선박과 병사를 잡아 송환시킨 공으로 은을 하사받고 올린 사은표⁴⁴⁾, 청이 이룩한 제국에 대해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하표⁴⁵⁾ 등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어진 표전들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 작품은 청나라 측에서 모방하여 지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⁴⁶⁾ 당시 조선 사대부들이 청을 적개시하고 사적 언술이나 글에서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대명 의리를 내세우고 있던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청측의 찬사는 구성이나 표현의 문제이기 보다는 청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라는 내용적 측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조선의 입장에서 표전은 실정이나 실상과는 별도로 국익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지어졌던 외교적 언술이었고 조탁과 운색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대청 표전에서 선명하게 두드러지는 이러한 특징은 대명표전이나 그 이전 시대의 표전까지를 포함, 표전 일반의 특징으로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하나 제기될 수 있다. 표전의 문학적 의의와 관련한 문제이다. 그 답은 문체 특징에서 출발하여 시대적 맥락에서 찾을 밖에 없다고 보인다. 표전은 본래 논리적 가치보다 심미적 가치가 우세한

43) 『조선국왕래서』 『皇上敕他通往明朝之罪的表』

44) 『조선국왕래서』 『皇上覃恩減貢併捉明船的賞三宗謝表』

45) 『조선국왕래서』 『皇上正旦表』 『聖旦表』 『皇上冬至表』 『皇上登極賀表』

46) 앞의 주석11) 참조.

문체이다. 정해진 형식 속에서 글의 재료-글자, 어휘 등-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문장을 엮어내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아름답고 효율적인 글이 만들어졌는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표전은 사대정책이 지배하던 시대의 산물이었고 보편적 가치와 명분, 국익과 실리 모두를 반영해야 하는 특수한 조건의 글이었다. 표현의 기술이나 문장력 뿐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인식과 명분, 의리, 예 관념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했고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조탁과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글이기도 하다. 따라서 표전의 독법과 문학적 평가는 일반 문장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 내용의 진정성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형에 따라, 목적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양식성, 경향성도 표전이 생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체 특징이자 짙어지고 가야했던 역사적 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중국에 대한 필요 이상의 칭송과 자국에 대한 지나친 겸사로 점철된 사대문서 표전은 대등 외교를 지향하는 현대적 관점에서는 분명 부담스러운 기록이다. 일정한 형식적 틀에 의해 지어지고 내용이 비슷비슷하여 작가의 개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는 것도 문학으로서의 의의를 재고하게 한다. 그러나 학자면서 정치인이었던 조선시대 관각 문인에게 있어서 국가를 위해 글을 짓는 것은 엄연한 문학 행위였다. 특히 ‘문형’의 이름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공들여 지어졌던 표전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정책적으로 사대를 택한 대신 글을 통해 국익과 국가적 자존심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는 문학 자료이다.

명분과 실리 그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은 표전식(表箋式)이라는 양식적 틀 안에서 문학적 기교와 수사적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표전식의 준수가 표전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소극적 전략이었다면, 화려한 수사와 전고를 활용하여 상대를 한껏 추앙하고 사대의 의리를 분명히 밝혀 믿음직한 제후국의 면모를 보인 것은 상대를 즐겁게 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었고, 통상적인 표전의 틀을 깨고 상투적인 미사여구를 벗어나서 실정과 진정을 절실하고 핍진하게 표현한 것 역시 외교적 성과를 염두에 둔 수사적 전략이었다.

『문원보불』 발에서는 잘된 표전의 조건으로 “아름다우면서 절실해야 한다”⁴⁷⁾는 것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어휘 선정에서부터 문구의 배치, 수사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아름다운’ 글을 이루고자 했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구사하여 ‘절실함’에 이르고자 했던 조선시대 표전은 문학성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학성 있는 개별 작품에 대한 세부적이고 분석적인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자료

『조선왕조실록』

『조선국왕래서』, 대만, 고궁박물관, 2012년

강백년 『설봉유고』

47) 『文苑黼黻』 <跋> “表箋欲其婉而切”

구봉령 『백담집』
권근 『양촌집』
기대승 『고봉집』
김상헌 『청음집』
김안국 『모재집』
변계량 『춘정집』
신광한 『기재집』
신흙 『상촌고』
임억령 『만취집』
이경석 『백헌집』
이경여 『백강집』
이명한 『백주집』
이식 『택당집』
이정구 『월사집』
이호민 『오봉집』
이황 『퇴계집』
장유 『계곡집』
정도전 『삼봉집』
정백창 『현곡집』
정충 『복재집』
채유후 『호주집』
최립 『간이집』
최항 『태허정집』

국내외문헌 및 논문

莫道才, 『駢文通論』, 齊魯書社, 2010, 1-327면.

徐師曾, 『文體明辨』, 【문연각 사고전서】 CD.

劉勰, 『文心雕龍』, 【문연각 사고전서】 CD.

李光濤, 『朝鮮國表文之研究』, 『明清檔案論文集』, 聯經, 中華民國75, 878-925면.

_____, 『朝鮮實錄中之事大文書』, 『明清檔案論文集』, 聯經, 中華民國75, 851-880

면.

_____, 『記清代的暹羅國表文』, 『明清檔案論文集』, 聯經, 中華民國75, 1005-1040

면.

褚斌杰, 『中國古代文體概論』, 북경대, 1992, 1-529면.

김종철, 『한국 주의류 산문의 문체 특성 - 표문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16집, 동방한문학회, 1999, 217-230면.

송병우, 『표문의 설득 수단연구』-고려사 소재 외교 표문을 중심으로, 동아대 박논, 2005, 1-112면.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 출판부, 1998, 1-418면.

이상돈, 『청대서적 조선국왕래서의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13집, 2004, 399-421면.

이선홍, 『조선시대 대중국외교문서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논, 2006, 1-228면.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 신서원, 2002, 1-299면.

최소자, 『청과 조선』, 혜안, 2005, 1-320면.

ABSTRACT

A Study on Diplomatic Documents (Pyojeons) during Joseon (2)
- With a focus on the rhetorical strategy

Lee, Eun-young

This study examined Pyojeons, the diplomatic documents in the relation with Ming and Ching during the Joseon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rhetorical strategy to create a realistic effect of national interest and practical interests based on the logic of justification and the Sino-centric world view.

Joseon had a conflict with Ming regarding the Pyojeons from its initial stage of founding a country. Thus, Joseon accepted the format of the Pyojeons suggested by Ming to the possible extent, but attempted to describe it in order to maximize an effect of delivery and persuasion. For Saeunpyo and Hapyo, which had strong commercial characteristics in its structure, it displayed the main theme in the front to emboss the respect and compliment. On the other hand, as for Cheongpyo, which was used to persuade Ching with special reasons, it secured logic and persuasion by using discussion type and displayed the main theme in the latter part. Jinwipyo, in which excessive wordings might be improper, was composed with short sentences.

The expression had varied strategies by purposes and conditions. While regular Saeunpyo or Hapyo focused on making the counterpart to be pleased and keeping stable relation in the form of Byeongryeomun, Cheongpyo or Saeunpyo, which was intended to plea the position of Joseon in the conflict situations or to gain diplomatic goals by attracting communication and sympathy, employed a prose style to deliver truthfulness and desperate sense. However, detailed description was excluded but abstract ideological pattern was employed in order to express the duty of the superior country along with the submission and ideology while sustaining peaceful world

rather than to make a reckless respect to a specific object.

The Pyojeon, which was devised with meticulous efforts by the country in the name of prose type, was an important resources to demonstrate Joseon's effort to seek balance between justification and practical interests keeping national interest and pride in writings even though Joseon had to opt submission policy in the Sinocentric world order. The critics of the Pyojeons have argued that "Beauty and desperate [Wanijeol]" are the conditions of good Pyojeons. Thus, vocabularies, display of sentences and rhetorical expression were meticulously reviewed in order to make a 'beautiful' writing, and the 'desperate' sense was attempted to be achieved by logical and persuasive expression. Thus, it might be proper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Pyojeons in Joseon in terms of literary value.

Key Words Pyojeon, diplomatic document, Sino-centric world view, rhetorical strategy, Ming, Ching, Joseon Dynasty period

논문투고일 : 2012. 10. 21
심사완료일 : 2012. 10. 26
게재확정일 : 2012. 12. 02